



특별인터뷰 유니온스틸 부산공장 착색도장설비 기공식 참석한 장세욱 사장

세계 최고 컬러강판 메이커로 도약 ‘기대’

유니온스틸 장세욱 사장은 지난 10일 부산공장에서 열린 #6CCL·#7CCL(Color Coating Line·착색도장설비) 기공식에 참석해 “설비가 준공되면 2015년까지 명품 컬러 강판 100만 톤을 생산, 세계 1위의 컬러 강판 메이커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150여명의 고용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세욱 사장과 의 일문일답.

—프린트 도장공장과 라미나 도장공장 기공식의 의미는?

▲한마디로 글로벌 컬러강판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니온스틸은 2015년까지 연간 230만 톤의 고기능 표면처리 강판을 생산, 매출액 3조원 달성, 영업이익 200억원 달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하나로 프린트 도장공장(#6CCL)과 라미나 도장공장(#7CCL)을 기공하게 됐습니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2012년까지 약 80만 톤의 컬러강판을 생산하게 되며 2015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컬러강판을 생산, 세계 1위의 컬러강판 메이커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준공 예정이며 준공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신규 설비는 2012년 1월 상업생산을



작공버튼을 누르고 있는 장세욱 사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가전시장의 전반적인 호조로 인해 컬러강판은 2015년까지 연평균 5%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던 세계 가전경기 또한 올해를 포함해 2014년까지 5년 연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니온스틸은 #6·7CCL에서 생산되는 고기능 고품질의 컬러강판의 판매량 증가로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이익의 200억원 증

가가 예상됩니다.

—컬러강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됐는데, 유니온스틸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한다면.

▲세계일류상품은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선정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유니온스틸 가전용 컬러강판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LCD TV, 세탁기 등에 사용되며, LG, 삼성, 엘지, GE 등 전 세계 가전제품 업체에 수출합니다.

특히 자국제품만을 선호하며 제품의 품질 선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의 가전회사(미쯔비시)에 국내 철강업체에서는 유일하게 수출되는 명품 컬러강판입니다.

유니온스틸은 수요와 제품 개발 시점부터 공동으로 디자인 및 패턴 개발, 사용 용도나 제품 특성에 최적화된 기능성 강판을 개발합니다. 또한 수요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적기에 납품 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적기 납품이 가능합니다.

—공장이 준공되면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약 15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남구정장하고도 많은 예기를 나눴지만 남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사람과 사람

여성단체협의회장에 취임

유정희 새마을부녀회 후원회 회장은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남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유 신임회장은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회원 확충과 내부 결속을 통해 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봉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표창패 받아

백호정 선형상사 대표가 지난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표창패를 받았다. 백 대표는 지난 88년부터 신발공을 만들어 국내외 유명 스포츠화 제조사에 납품하는 선형상사를 운영해 오며 투명한 기업 경영을 통해 모범납세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도 향토기업인 유니온스틸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최고 향토기업 유니온스틸을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1962년 12월 10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 설립된 유니온스틸은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유니온스틸은 국내 최초로 냉간압연강판 및 갈바륨 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했으며, 1974년 국내 최초로 수출 1억 불 탑을 수상하였습니다.

유니온스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건축 내외장재, 방화문, 냉장고, 세탁기 등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유니온스틸은 1994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 임·단합 무고섭 타결을 이어가면서 철강업계에서는 최장기 노사간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리·김옥련 기자

장 세 욱 사장 주요 프로필

-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육군소위 임관
- 동국제강(주) 입사(1996)
- 동국제강 전략경영실장(현)
- 동국제강 부사장(2007)
- 유니온스틸(주) 대표이사 사장(현)

다문화가족 지원나서

오세련 전 다문화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이 지난 23일 다문화가족상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상담, 가족상담, 남편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직업관련 안내와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는 대원3동 현대 오피스텔 306호에 위치하고 있다. ☎010-3595-0088



자충시지부 청년회장에 취임

허영식 자유총연맹 남구지부 청년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강당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청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허 회장은 “젊은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협의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반갑습니다 –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박희채 신임회장

생활체육 동호인 50만 시대 열겠습니다

제7대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회장에 응호1동 중앙해수랜드 박희채 대표가 선출돼 지난 25일 취임했다.

박희채 회장은 “민고 중책을 맡겨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체육회의 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바라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이 5년간 이끌어갈 체육회는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91년 출범했다. 현재 16개 구·군생활체육회와 37개 종목연합회로 구성돼 있다. 2,800개 종목 클럽에 등록된 생활체육회원은 약 30만 명이고 비등록 회원은 1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최대 규모의 단체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묻는 질문에 박 회장은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등록률을 전체 시민의 30%수준으로 끌어올려 등록 동호인 50만 시대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가입된 37개 종목을 45개 이상으로 늘리고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용호동에서 10여 년간 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남구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는 풍광이 아름다운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이



시민 참여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육성

백운포체육공원 등에 체육대회 유치

용해 시민걷기대회를 추진하고 백운포체육공원과 장자산, 부산환경공단남부산사업소 등의 체육시설을 활용, 다양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매일 새벽 산을 오르며 건강을 다지고 있는 박 회장은 “시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7330(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운동하자) 캠페인’에 모든 부산시민이 동참해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누리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박희채 회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지구 총재와 부산핸드볼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을 위한 봉사와 부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신경희 기자

■ 우리구 사람들

국기(國技)태권도 위상 높일 터

시태권도협회 최 말 영 부회장

최말영(64·용호2동) 전 구의원인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돼 임기 3년의 바쁜 일정에 들어갔다. 최 부회장은 “박재희 회장을 도와 우리민족 고유의 국기(國技)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태권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는 어떤 운동이냐는 질문에 그는 “태권도는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맨손운동으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무엇보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남구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

부회장은 지난 1961년 태권도에 입문해 50년 외길을 걸어왔다. 현재 공인9단으로 용호2동에서 화랑체육관을 운영하며 후진 양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수기치 사령부 태권도 선수단 시절부터 태권도를 가르쳐 온 그가 배출한 제자만도 수천 명에 이른다. 2004년부터는 1급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명인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16년간 장자산을 땀발로 오르내리며 건강을 다지고 있는 최 부회장은 틈틈이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르치는 태권도인으로서의 삶을 천직으로 알고 오늘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평생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품원문화센터 홍 문 경 지부장

홍문경(55·용호3동) 품원문화센터 남수영지부장은 남·수영구 주민들의 일자리창출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지부장은 지난해 9월 센터를 개소하고 주민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하고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평생교육을 위한 가정·미용·미술·공예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며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사실 홍 지부장 역시 20여 년 전 부산의 모 백화점 문화센터에 수강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캠프를 배우며 자기계발에 나선 그는 이후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 강사

생활을 하며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나서게 됐다.

홍 지부장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기계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미를 넓어창의하는 회원들을 볼 때 가장 보람된다”고 밝혔다.

현재 100여명이 수강하고 있는 문화센터는 수영구 광안역 7번 출구 앞에 있으며 일회비 5만원만 지불하면 1년간 전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757-3253 김옥련 기자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감사

경로당 에어컨 기증 이영자씨

지역의 한 경로당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 독지가가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용호1동에 살고 있는 이영자(68)씨는 최근 용해경로당에 고가의 에어컨을 설치해줘 어르신에게 청잔을 들고 있다.

영자씨의 선행은 이뿐만 아니다. 3년 전 경로당 개소 당시 후원금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부정기적으로 도움을 전하고 있다. 35년 전에도 관내 경로당에 TV를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영자씨의 이 같은 어르신 사랑은 이유가 있다. 30여 년 전부터 지역에서 식육점 등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과

연을 맺기 시작했다. 당시 손넉으로 가게를 찾아 준 어르신들 덕에 3남1녀를 무사히 공부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게 영자씨의 말이다.

“어려운 시절 저의 가게를 찾아 준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영자씨는 불행으로 다져진 건강을 말전살아 남편 정정평씨와 여생을 봉사하고 살겠다는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유경희 기자

웃는 얼굴로 주민에게 감동 전달

오록도 친절지기
용당동 조외건씨

조삼순씨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했다. 많이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보더니 사진을 가지고 왔으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관할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몇 년 동안 훼손된 채로 가지고 다녔었는데 조외건씨 덕분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 바쁜 업무 중인데도 주민의 편의를 챙겨주고 배려하는 조외건씨의 친절에 감동 받았다고 여사를 보내왔다.

행정의 최일선인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그는 민원인이 별이나 제도하고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며 억지 쓸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럴 때는 끝



주민편의 우선 행정 몸소 실천

주민센터 ‘미소천사’로 알려져

까지 얘기를 들어주고 설득하며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항상 웃는 얼굴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면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조외건씨가 용당동 주민센터의 미소천사로 알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최정순 기자

★신문을 읽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

세상과
당신사이



중앙일보

- ◆ 어디서나 읽기편한신문
(한국역사 100년을 새로 쓰는 베를리너판)
- ◆ 정보의 깊이가 다른 신문
- ◆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자녀 교육의 다양한 선택
(틴틴경제, 애플영어, 대입수능지)

- ◆ 다양한 요일별 섹션
월 : 현대인의 건강섹션
화 : 취업과 창업섹션
수 : 중, 고교생 교육섹션
목 : 부동산, 금융, 자동차섹션
금 : Week & 주말섹션
토 : 인물, Style

◆ 구독 신청시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632-4861 광만 : 627-7703 대원 : 627-0471 용호 : 622-9620

대호레포츠클럽회원모집 합니다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
(수시모집)

※ 새봄맞이 전 종목 대폭 할인행사

위치 : 유엔로터리에서 외국어대학 방향 150m 지점

☎ 627-0027~8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원 ☎ 612-9393

(대원5동 기아자동차 옆)



아모레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 급여와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메이크업 등 체계적 교육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아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퍼시픽 남부지점 T.627-2225

